

# 성서 해석의 과정

—성서 본문과 설교(4)—

安 炳 茂

## 1. 계몽주의 時代의 성서 이해

종교개혁은 이미 波動된 르네상스와 時代的인 공통성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교회의 권위에서 해방된 성서가 어떤 정황에 놓이게 된 것이며 그 해석이 어떤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을 약속한 것과 같다.

루터에게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출발은 17세기 전반까지 이른바 宗教戰爭時代에 뒤물되므로써 기독교 자체내의 空白期를 가져오므로써 그 틈을 타고 침투한 것은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人道主義이었다.

17세기 후기에 이 종교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이른바 계몽주의가 전 유럽의 모든 分野에 침투하였다. 이것은 낡은 기독교의 價値觀을 타파하는 운동이었기에 일체의 권위를 부정함과 더불어 이른바 聖俗의 구별은 철폐되는 수 밖에 없었다. 따

라서 「성서」도 하나의 책이지 그것에 붙여진 「聖字」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이 날까지의 敎義인 해석에서 해방되어 모든 다른 책과 똑같이 歷史的, 批判的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역사비판적인 연구는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계몽주의의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

계몽주의의 성격을 상징하는 것은 「歷史」와 「理性」이라는 두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一致된 것이 아니며 또 그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일된 견해는 없다. 그러나 이 두가지 개념은 이 時代의 두 支柱와도 같은 것으로써 이것들은 성서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그 이해가 細分된 것은 말할 수 없고 그 성격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歷史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있는 것은 歷史뿐이다. 歷史는 發

展하며 進歩한다. 그러면 이 歷史는 무엇을 向해 발전 진보하는가? 그것은 그안에 이미 內在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성적 眞理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 眞理가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人間精神이다. 그래서 當時에 「歷史—발전」 「이성—人性格」이라는 생각이 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超越的 神의 뜻이 歷史를 支配한다는 재래적인 사고에 대해서 歷史는 人間에 의해서로 代置시킨 것이다.

가령 계몽주의의 先鋒에 섰든 뎃싱(G.E.Lessing, 1731—1805)은 궁극적인 것은 이성적 진리이고 歷史는 이 진리구현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성서에서 말하는 제시가 진리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성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것이 특수한 意味가 있다면 그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이 보편적 진리를 시간적으로 앞질러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성서의 진리를 이성적 진리라는 테두리에서 상대화했으며 둘째는 성서를 歷史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화함으로써 그 발전과정의 소산으로 보았으며 셋째는 그것의 비판

기준은 理性이라는 사실이다.

또 헤르더(J.G.Herder)이나 쉼라이엘마허(F.E.D. Schleiermacher) 등은 歷史는 人間精神의 自己展開(Selfentfaltung)라고 보고 종교도 바로 人間의 宗教性的의 자기 전개라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성서도 人間精神으로써의 宗教性的의 自己展開의 產物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서란 바로 人間精神史의 한 기록이다. 이러한 方向을 극단화한 것은 헤겔의 歷史哲學을 도입한 이른바 튜빙겐 학파다.

그 창시자인 바우어(F.C. Baur 1817—1876)는 처음 교회의 역사를 헤겔의 역사발전형식에서 해석했다. 그는 신약성서를 宗教意識의 발전적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유대적 그리스도교(正)와 이방 그리스도교(反)의 대립을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가 신약성서(合)라고 보았다. 그중에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는 이 두 理念이 調和를 이룬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은 思想的 側面에서 성서를 보았기 때문에 그 本文의 文獻學的 연구는 소홀히 했으나, 성서가 유대주의와 헬레니즘과의 긴장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중요한 공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성서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는 白明하다. 爲先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最高善이다. 그것은 이미 역

사안에 내재한 것으로 그것은 그안에서 자기발전을 하므로써 이 땅위에서 완성 실현된다. 그것이 실현된 현실이란 다름 아닌 이성적, 윤리적으로 완성된 세계다. 또 예수에 대한 도구마적인 표현인 二性論(神人)따위는 계몽되기 이전의 이해다. 예수가 말로 가장 참된 인간으로써 가장 완벽한 이성적 진리인 최고 윤리의 설교자이며 윤리적인 완성자다. 따라서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사화는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령 예수가 갈릴리 호수위로 걸어갔다는 표현은 비 이성적이다. 사실은 예수가 이른 새벽에 호수가를 걸은 것을 제자들은 물위로 걸은 것처럼 본 것이다. 또 물고기 두마리와 떡 다섯명의로 千名을 먹였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예수의 설교에 감격한 군중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내놓아 고루 나누워 먹고도 남은 것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또는 예수의 부활은 假死상태에서 되살아나서 도피하는 것을 본 것일 것이다. 등등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제에서 그시대에 理想的人間으로 그린 「예수전」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一時的인 事件으로서의 예수의 출현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에게 이성적 보편적인 모범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이른바 「예수전」을 쓰

는 자료는 네복음서들인데 저들은 그 넷사이의 차이 따위는 전혀 가려내서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적당히 조화 배열했던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心理的인 추리에 依存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저들은 예수를 近代人의 像으로 바꾸어 넣었던 것이다.

## 2. 종교사학과와 성서

종교사학과란 피팅겐大學에 모인 젊은 少壯학자들에 依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당시에 구약파를 휩쓸던 뢰틀학파에 대한反省에서 일어났다.

뢰틀학파는 계몽주의의 흐름을 비교적 온건하게 성서이해에 도입했다. 저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신약성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의 교훈과 그의 人格인데 이것이 바로 福音이다. 이 복음의 내용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다. 죄사함은 個人의 人格과 관계되며 하나님 나라는 한 共同體를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나 죄사함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倫理道德의 대상이다. 성서가 지향하는 바는 참 倫理的人間 그리고 倫理的으로 完成한 사회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서관은 성서를 그 時代의 이성적사교의 틀에 직접 맞추어 버린 조직 신학적인 귀결이다. 이에 대해서 종교사학과들은 그 가치를 운운하기 전에 성서의 현실



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역설했다. 이것은 역사학의 철저화다 그와 동시에 저들은 一般歷史와 宗教史를 일단 구별할 것을 주장했다. 까닭은 그대야만 그때의 歷史學에 뿌리박은 가치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령 세계적인 주석서도 알려져 있는 마이어 주석서 (Kritisch-exegetischer Kommentar zum N.T.)의 창시자인 마이어(H. A.W. Meyer)는 1829년에 낸 첫권의 취지문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바울의 해석자는 해석자의 「나」에서 떠나서 바울 자신의 선 자리와 그의 사교의 세계에 들어가서 되도록 순수하게 그 현실을 전달하는데 끝어야 한다. 이것은 해석자가 어떠한 立場을 세우거나 어떤 전제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신약학의 한계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의 價値를 운운하거나 또 그것의 實用性을 문제하는 것은 哲學이나 敎義學의 소관이다. 이러한 입장이 옳은지는 좌우관 이것은 종교사학과의 입장을 단적으로 말한 것이다.

종교사학파는 성서연구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 저들의 공로는 대체로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성서를 종교라는 틀에서 봄으로써 일반 역사관의 가치관에서 일단 방어했다. 둘째는 성서가 형성된 歷史的

상황을 규명함으로써 성서의 여러 요소들과 그 언어들의 근원을 밝히므로써 그 본뜻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을 위해서 저들은 言語學 考古學 宗教學을 개척한 것은 그 절대 공로다. 셋째 성서의 文體와 그 類型에 대해서 歷史的으로 연구하므로 그 형성사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저들의 노력에서 얻어진 구체적인 것들을 몇가지 든다면 첫째로 구약이 형성되는 주변인 中東아시아의 古代종교의 전상과 그 세계관이 개발된 것이요, 둘째는 신약이 형성되는 주변인 헬레니즘영역의 종교들에 대한 연구다. 이들은 오늘날의 성서연구에 있어서 제외할 수 없는 업적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계기를 준 것은 이미 固定된 물음으로 성서를 대하므로써 벌써 一定한 대답을 결정하고 들어가므로 성서의 전체성을 위축 또는 파괴하는 폐단을 지양하고 있는 그대를 드러내므로써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가능하게 한 사실이다.

이러한 方向設定의 결과는 계몽주의 時代의 성서이해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성서의 中心을 倫理敎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終末論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점이다. 바이스(J. Weiss)는 그의 작은 책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의 설교」(1892)

에서 예수의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종말론이었지 倫理가 아니었음을 밝힌 것으로써 이날까지의 이성—윤리의 일변도의 自由主義神學의 方向에 부레키를 건 첫 門이다. 그는 이門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地上에서 발전하는 最高善으로 道德的 질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後期 유대교의 목시문학적 終末論에 근거한 超自然的인 하나님의 介入의 한 현실을 말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에서, 에녹 에스라파등을 연구해야 하며 靈, 사탄 또는 메시아, 人子등을 도덕적 측면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宗教史的 次元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 著書에 공감한 슈바이처는 계몽시대 이후의 예수연구사를 총괄하여 연구 비판하므로써 윤리일변도의 계몽주의적 성서이해에 종지부를 찍게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대교 연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가령 부세(W. Busset)의 “예수 그리스도”時代의 유대종교(Die Religion des Judentums in Zeitalter Jesu Christo 1952)가 그 대표적인 경과다. 그는 이 책에서 「人子」 「메시아」 「敵그리스도」등은 결코 倫理 道德的인 개념들이 아니라 그것은 바빌론 페르샤등에 기원을 가진 宗教的 終末論의 개념들임을 밝혀냈다. 구

약학자 궁켈(H. Gunkel)의 「原時와 終時에 있어서의 創造와 混沌(Sehp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 1895) 같은 것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一貫된 中東아시아 宗教의 종말사상과 같은 관련이 있음을 밝혀낸 不久의 著作이다.

이러한 宗教史的 연구는 기독교가 형성된 상황인 헬레니즘 연구에도 拍車를 加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신약의 개념이나 사상은 헬레니즘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예수를 예배의 대상으로써의 主(Kyrios)로 급 전환한 것은 유대교적 전통안에서 이루어진 귀결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영향아래서 새롭게 파악된 종말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례 성찬등 사크라멘트의 성격을 가진 예배의 내용은 모두 이것과 관련이 있다. 헬레니즘 연구는 처음교회 특히 바울, 요한등의 연구에 획기적인 새 경지를 개척했다. 부세의 「주 그리스도」(Kyrios Christos, 1913)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고 部分的인 연구로써 아이히호른(A. Eichhorn)의 “신약의 성찬”(Das Abendmahl in N.T. (1898)을 위시해서 하이트뮐러(W. Heitmüller)의 “예수의 이름으로”(In Namen Jesu, 1902), 브레데(W. Wrede)의 “바울”(Paulus, 1905)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宗教史學

派의 연구를 거친 결과를 이어서 그리스도주변의 宗教양상을 간결하게 압축한 책은 블트만의 원시기독교(Das Unchristentum in Rahmen der antiken Religionen 1949)로써 허역 번역 「초대 그리스도교」다.

이상에서 略述한 종교사학파의 연구의 결과는 성서해석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① 성서를 종교학의 틀 안에서 보게 되므로써 이날까지의 기독교의 절대성에 대한 신념과 주장이 흔들리게 됐다. 까닭은 성서도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진 것은 같은 平面에서의 優劣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 絕對性을 말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점은 오늘날 한국에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서 야기된 혼란성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다. 까닭은 오늘의 종교적 대화는 되도록 종교간의 共通點을 찾자는 데 있는데 대해서 종교사학파의 결론은 기독교 경전인 성서의 성립이 다른 宗教的 要素들로 混合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② 구약과 신약, 아니 신약안에서도 그 연속성이 흔들리게 됐다. 까닭은 구약이 형성된 상황과 신약이 선 자리가 다르므로 그 성격이 또 한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역적인 차이에서도 오고 또는 年代的 差異에서도 온다. 그러면 성서를 통틀어서 이런 것이라고 一元的

으로 말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러다가는 성서의 多元性을 배제하므로 많은 것을 잃어 버리게 된다.

③ 위와 관련해서 그러면 성서해석자는 어느 입장에 서야 하느냐가 문제됐다. 구체적으로는 공관서의 예수나, 요한복음의 입장이나, 아니면 바울의 입장이나? 그래서 이미 저들은 예수나 바울이나 하는 논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 때문에 저들의 업적을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된다. 어떻게 드러난 사실을 낡은 교리적 개념때문에 은폐할 것인가! 그러나 저들의 연구는 다음의 과제와 한계성을 드러냈다.

④ 저들은 성서의 상황과 또 그것에 의해서 된 彩色에만 관심했을 뿐 기독교의 本質적 자체의 主導性에 등한했다. 이것을 한 무대와 그 위에 선 배우로 비교한다면 그 무대와 그 배우의 이상이나 제스처와의 관계만 보았지 그 배우는 보이지 않는 脚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輕視했다.

⑤ 위와 관련된 것으로써 저들은 성서에서 기독교의 기본 本質적 자체와 다른 종교간의 접촉에 이루어지는 현상만을 보았지 거기 해석자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면 저들은 밖에서 안으로 向했지 안에서 밖으로 向하지 못했다. 그 안에는 해석자가



있다. 이 해석자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안에서 밖을 보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제앞에서 형성된 방법이 다음에 말할려는 양식적연구와 편집사적 연구다.

### 3. 樣式史와 편집사적 연구

#### a) 양식사적 연구

계몽주의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전」에 도취했으나 종교사학과를 거쳐서 큰 암초에 부딪치게 됐다. 그 까닭은 첫째: 종교사적 연구는 예수를 近代의 예수에서 24年전의 예수로 환원시키고 그와 24年이후의 인간들과의 사이의 거리를 메꿀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령 슈바이처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의 윤리는 그 나라를 전제한 극한윤리(Interimsethik)라고 하므로 우리에게는 適用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 그 예다. 둘째: 1901년에 브레테(W. Wrede)가 마가복음 연구인 「복음서의 메시아 비밀이라는 저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마가복음은 결코 객관적 역사서술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을 통한 예수의 삶의 보도이기 때문에 예수전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셋째: 1903—1906에 웰하우스(J. Wellhausen)이 그의 복음서 주석에서 브레테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로 규명한 결과 복음서는 결코 한번에 서술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단편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서 예수의 생과 결부시켜서 연결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난 마당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서는 그저 하나의 과거의 유물로써 분석해본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것과 現在의 人間과의 어떤 관련성을 모색할 것인가?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연구로써 등장한 것이 양식사적 방법이다.

양식사적 연구는 구약학자 궁켈등이 시작했는데 신약연구에 그것을 적용한 대표적인 선구자들은 슈미트(K.L. Schmidt) 디벨리우스(M. Dibelius) 볼트만(R. Bultmann)이다.

이들의 과제는 웰하우스등의 연구결과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복음서분석에서 발견된 복음기자들의 편집에서 이미 있는 전승자료를 분리시키므로써 거기서 비록 단편적이거나 역사의 예수를 발견할 거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집구와 원전승을 철저히 가려내야 하며 그것을 가려 내기 위해서는 처음 교회를 지배한 신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들 정황을 밝혀야 했다. 그것은 또한 복음서가 어떻게 전승형성됐나 하는 역사적인 추구가 될 수 밖에 없다.

슈미트는 그의 「예수史의 틀」(Der Rahmen der geschichte Jesu, 1919)에서 예수史의 줄거리와 전승 자료를 분리했다. 그는 거기서 마가의 構成은 결코 예수의 생애의 과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편집자료로 연대적인 배열이 아니라 그 內容이나 양식에 따라 분류했음을 밝혔다. 가령 2—3장은 예수와 反對者들과의 논쟁을, 4장은 비유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것이다. 또 마가는 시간 장소 같은 것을 전혀 명확히 연결시키지 않았다. 가령 “그가 회당에서 나와” “그는 다시 바다로” 등과 같은 접속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 들어갔으며 어디에서와 같은 연관이 없다 그는 계속 “그리고”를 쓰나 그것이 어떤 일 다음인지 알수 없는 것들이 그 예다. 따라서 그는 이 모든 접속구들은 복음기자의 소관이라고 했다. 그런데 슈미트는 전승자료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그 전승자료들이 그대로 보존됐는지 아니면 마가에서 변동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계속 추구하므로 그 전승자료의 전승과정을 밝힌 것이 디벨리우스와 볼트만이다. 디벨리우스는 그의 복음서의 양식사(Die Formgeschichte des Evangeliums, 1916), 볼트만은 공관서 전승사(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1921), 허역 역,

共觀福音傳承史, 기독교교회발행)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밝혔다. 두 사람의 관점은 약간씩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다. 첫째 ; 복음서에 편찬한 전승자료들은 그 類型과 樣式에 있어서 일정한 공통의 법칙이 있다. 둘째 : 마태, 누가, 마가와 비교하면(볼트만) 발견된 흔적이 보이는데 그것은 각복음서에 일정한 경향이 있다. 셋째 : 이로써 마가에서 文出化되기 이전에 그 전승자료의 형성과정이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넷째 :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형성됐나? 그것의 母體는 바로 처음의 교회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이다. 그 삶의 자리는 바로 부활을 믿는 처음교회의 신앙의 증언이다. 물론 그안에 역사의 예수의 사실이 내포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신앙을 매개로 해서 형성 전달됐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안의 전승들은 예수의 삶에 대한 기억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삶에 무슨 意味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이른바 「케리그마」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상에서 양식사적 연구의 출발과 그 着陸地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歷史의 예수에 접근하려다가 결국 처음교회의 「삶의 자리」에 着陸하고 만 것이



다. 한마디로 하면 역사의 예수를 찾아 떠났다가 초대교회의 설교「케리그마」를 발견한 것이다.

## b) 편집사적 연구

양식사적 연구는 복음서의 편집적인 틀에서 전승자료들을 분하고 그것을 또 分析 설명했다. 그러므로 복음서들을 分解했을 뿐 그 복음서들을 하나의 「作品」으로써의 意味와 그 뜻하는 바를 묻는 일을 하지 않았다. 즉 복음서들이 그 전승자료를 왜 그렇게 편집했으며 또 그 전승자료들을 약간씩 변동시켜야만 했는가 하는 물음을 하지 않았다. 편집사적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복음서들의 특성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브레테와 로마이어 (E. Lohmeyer, *Galliläa und Jerusalem*, 1936) 등이 시도했는데 양식사적 연구의 뒤를 이어 본격화한 선구는 누가복음에 콘첼만(H. Conzelmann. *Die Mitte der Zeit* 1954)마가에 마르크센(W. Marxsen, *Der Evangelist Markus*, 1956)마태에 보른캄(G. Bornkamm, *Überlieferung und Auslegung in Matthäus-Evangelium*, 1960)등이다.

이 연구는 전승의 단편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사의 최종의 결정인 복음서 전체의 편집작업에서 들어난 神學을 묻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마

가의 편집에서 나타난 특성은 처음 교회의 告白—가령 고전 15:3이하 또는 빌립보 2:5이하 또 사도행전에 산재한 설교등에서 볼 수 있는—과 같은 판본이 있다. 즉 그는 처음 교회의 告白에 따라서 전승자료를 편집하므로 그 告白을 분명히 했다. (볼트만은 이미 복음서는 확대된 케리그마라고 했다) 마태는 마가에 다른 어록을 配合 편집함으로써 예수는 단순히 신앙안에서 그가 살아 있는 동안(과거)에 주시며 十字架와 부활의 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現在의 스승이라는 사상을 나타낸다. 누가는 마가에서처럼 도래할 종말이 아니라 구원의 때인 오늘에 現存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 두 연구방법이나 결론을 손쉽게 소개된 것은 E. R. McKnight, *What is Form Criticism?* N. Perrin, *What is Reduction Criticism?* Fortress Press)

편집사적 연구는 현금의 신약연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나 주목할 것은 양식사적연구에서와 같이 복음서를 케리그마로써 취급하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역사비판학적 방법을 배제하고 씌어진 성서 그대로를 독리하는 옛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수는

<p. 50 로계속>

등이다.

⑬ 각 cube 그룹은 자체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외부 활동을 계획한다. —다른 전체 프로그램과 상치되지 않는 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⑭ 각 cube 그룹은 반년에 한번씩 전체 그룹 단위의 대예배를 주관한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고등학생과 청년들 전체의 친교가 이루어진다.

⑮ 멤버의 개인 가정에서 모이는 cube 그룹 활동은 청년들의 모습과 문제를 부모들앞에 노출시켜보는 기회가 된다. —이런 기회가 여러번 주어지면 그룹의 회합이 세련되어서 질서있고 시간이 잘 지켜지는 생산적인 모임이 될 수 있다.

⑯ 한 cube가 한 두가지 특별한 잇슈나 프로젝트를 탐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청년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지되

어 완수된다. 사회조사, 특수상황조사, 선교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⑰ cube 그룹은 원칙적으로 임원진을 갖지 않는다. 다만 회합을 추진시키는 책임을 위해 윤번제의 회장이 있을 뿐이다. —여러 cube를 묶는 고등부나 청년회 전체의 친교와 유대와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이 있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소집단의 활동과 그 리더쉽에 관해 논해왔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활동에서는 “소집단 뿐”이라는 생각은 역시 완전치 못하다. 대집단은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다. 교회는 그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 층을 위해 유연성있게 그때 그때 적합한 방법을 소집단으로나 혹은 대집단 활동을 통해 선택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p. 41에서 계속>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역사적 비판—양식사적 비판연구의 결과를 받아서 進一步한 것이지 결코 그 연구결과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오늘날까지의 성서연구의 과정을 一覽했는데 이로써 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성서의 참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요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定着地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성서연구의 과정에서

언어진 知識없이 성서의 참 연구는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비록 자신이 이러한 연구를 거치지 못하더라도 이같은 연구의 테두리에서 쓴 주석서를 충분히 참고하지 않고는 성서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부터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참작하면서 직접 本文을 취급하므로 그 本文에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기로 하겠다. □